

# 중세유럽의 서적, 그 상징적인 토포스

“완벽한 중세의 서적을 능가하는 예술작품은 중세의 건축(고딕성당)뿐이다” - 윌리엄 모리스

이광주 · 인제대 명예교수 · 서양사

유럽 중세 1370년경, 성직자가 아닌 속인이 종교서적을 읽거나 갖고 있을 수 있는지는 논의가 일어났다. 아비뇽 교황청은 물론 황제 카를 4세의 공정도 그런 논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중세에 성서를 비롯해 종교서적은 원칙적으로 교회와 성직자의 독점물이요, 그것은 속인에게는 금기였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지향한 믿음의 천년,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서가, 그리고 그것을 밝히고 찬양하는 서적이 터부였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대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를 비롯해 태고적 문자란 신들이 발명한 신성한 것, 그리하여 문자를 읽고 소유하는 행위는 신으로 여겨진 왕이나 그의 곁에서 서적을 관장하는 신관(神官, 이집트의 서기)에게만 허용된 주술적인 의미를 지녔다.

## ‘성서의 저자는 신이다’

가톨릭 중세에는 ‘문자’라는 말 자체가 신성한 의미를 지녀 ‘Bible’의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를 담은 ‘서적’이라고 하면 바로 성서를 지칭했다. 유럽 서적문화의 산실은 수도원의 사본실이요 가톨릭 중세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토포스는 문자와 서적이다. 그 신의 로고스에 인도돼 길이 생겨나고 마을과 도시가 설계되고 그 한복판에 성당과 대학이 세워졌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은 인생을 ‘한권의 두루마리’에 비유했다지만 그들의 정념과 이성이 육성된 장은 아고라 광장과 극장이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말’의 인간이지 문자·서적의 인간은 아니다. 수사학적인 그리스의 교양은 서적이거나 그것이 놓인 서재와는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유럽 최초의 서재인을 홀로 방에 들어앉아 사색하고 글을 쓴,

그리고 서적이 놓인 그 공간을 자신의 ‘가장 확실한 거처’라고 말한 스콜라학자 보에티우스(480~524)에서 발견한다.

모든 ‘종교적인’ 문명권에서 승려집단이 1천년 이상 문자를 독점했듯 중세교회는 성서를 성당 밖으로 함부로 드러냄을 꺼려했다. 그리고 성서가 속인의 언어인 각국어로 번역되는 일도 오랫동안 신성모독으로 이단시됐다. 교회는 왕후 귀족에게만 성서를, 그것도 발췌된 단장(斷章)의 형태로 갖게 했다. 신의 말씀이 그릇 이해되고 악용됨을 두려워한 까닭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 뜻에서였을까. 교회는 그 신성한 말씀을 은밀하게 비장함으로써 ‘신의 대리인’이라는 돌도 없는 권위를 누릴 수 있던 것이 아닌가.

## 문맹시대의 귀족과 성직자, 서적

서적이 금단의 과실처럼 여겨지고 보석처럼 희귀한 시대는 문맹의 시대였으니 중세 유럽은 전인구의 90%가 일차 무식쟁이었다.

비련의 서사시 《트리스탄과 이졸데》(12세기 중엽)에는 트리스탄이 이졸데에게 글 읽기를 가르치는 장면이 있다. 왕에게 시집가는 공주 이졸데는 까만눈이었던 것이다. 중세의 귀족은 대개 문맹이었다. 8세기말~9세기 초 가톨릭 르네상스를 이룬 황제 카를대제도,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 독일 최초의 대학을 세운(1386) 선제후 루트베르트 1세도 만년에 이르러서야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서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성직자는 어떠했을까.

13세기 중엽 주교나 수도원장 등 고위 성직자 중에도 자기 이름을 못쓰는 자가 적지 않았다. 13세기말 10년 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어느 기사 수도원은 놀랍게도 관구장 이하 모두가 일차무식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교회법에 따라 모든 성직자가 학습하게 되는 15세기 이후다.

중세의 출판인과 편집인은 사본실의

수태고지(오른쪽). 중세의 채색사본(파리, 15세기). 마리아 뒤 서적이 놓인 책상이 인상적이다. 활자로 구성된 그리스풍의 신전(아래). 호메로스·페리클레스·핀다로스의 이름이 보인다(파리, 1889).



수도사요, 발행인은 그들에게 서적제작을 하명 주문한 고위 성직자와 왕후 귀족이었다. 왕후 귀족은 그들의 지위의 상징으로서 값비싼 호화 미장본을 탐했다.

중세를 통해 출판된 서적의 77%는 라틴어본이다. 성직자와 교회의 언어인 라틴어는 17세기에 이르도록 국가의 공용어요, 대학의 언어, 학식자의 언어였다. 각국어판 서적은 이탈리아어가 7%, 독어가 5~6%, 불어가 4~5% 정도였다.

출판의 장르는 성서와 미사나 기도 등 성당에서의 제례에 관한 매뉴얼이라고 할 전례서(典禮書) 그리고 교부의 저작 등 종교 서적이 45%에 이르렀다. 그에 이어 고전 고대의 철학과 시문학 서적이 30%를 차지한 바 수도원은 이교의 서적도 복원한 것이다.

그밖에 법률서와 과학서적도 각각 10% 출간됐다. 학식자 즉 성직자와 대학인 사이에서 읽혀진 교부의 저술 중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오랫동안 신학의 교본이었던 페트루스,

롬바르투스의 《명제집》,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및 오캄의 저작이 잘 알려지고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1472경)는 성서 다음으로 널리 읽혀 몇몇 사이에 70판이나 출간됐다. 성서와 더불어 중세 최대의 베스트셀러라고 할까.

그리스-로마의 고전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세네카·카토가 그리고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와 오비디우스가 읽혔다. 중세에 ‘철학자’라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했으며 그의 주요 저작은 대학의 교본으로 통용됐다. 플라톤과 호메로스는 15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관심의 대상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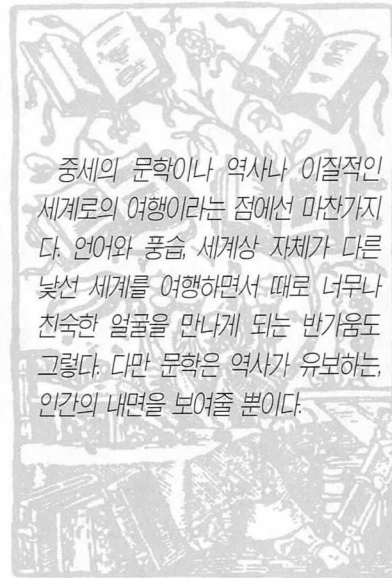
## 사본문화와 고딕성당의 정념

경건한 신심이란 오묘하고 풍요한 파도스에서 배태되는 법.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대가람을 쌓아올린 중세의 정념은 또한 《몰랑의 노래》·《니벨룽겐의 노래》·《장미 이야기》·《아더왕 전설》 등의

# 미지의 세계를 밝는 즐거움

## 중세의 매력

최애리 · 불문학 박사 · 중세문학 전공



중세의 문학이나 역사나 이질적인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언어와 풍습, 세계상 자체가 다른 낯선 세계를 여행하면서 때로 너무나 친숙한 얼굴을 만나게 되는 반가움도 그렇다. 다만 문학은 역사가 유보하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줄 뿐이다.

다른 많은 일들이 그렇지만, 중세문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도 돌이켜보면 우연한 것이었다. 처음 외지에서 공부하게 됐을 때 중세부터 20세기까지 세기별로 일정수의 작가를 택해 읽어야 하는 시험에서, 중세 작가들 중 한 사람으로 크레티앵 드 트루아를 골랐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아더왕 이야기' 라니 흥미가 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대강 아는 내용일 터이므로 시험 준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작품을 읽으면서, 그런 예상은 차츰 실망으로 바뀌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 없는 우여곡절이 이어지고 불필요하게 장황한 묘사가 늘어지는 등 크레티앵의 작품은 의외로 엉성하고 서투르다는 인상을 주었다.

중세문학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처럼 어설플게 보이는 작품들이 실상 매우 정교한 글쓰기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였다. 중세 작품에는 고유한 의미의 지평이 있으며 첫눈에 무의미해 보이는 요소가 오히려 숨은 의미의 단서가 된다는 사실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텍스트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르네상스 이후 인문주의적 전통에 의거한 문헌학적 이상 및 독창적 예술의 개념 때문에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던 그 이질적인 창작미학에 조금씩

친숙해지는 것은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그런 발견에 들떠, 그저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읽었던 크레티앵의 작품들에 대해 짧은 논문을 썼고, 이후로 중세 문학이 '전공'이 돼버렸다.

그런데, 중세 작품에 내재하는 의미의 지평이란 근본적으로 중세의 삶-세계라는 현실의 지평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보면, 그 이질성의 장벽은 역사적 지식의 중개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 일례로, 중세문학의 중요한 주제들 중 하나인 '궁정풍 연애'는, 중세의 사회제도 및 결혼관행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배경으로 해야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또한, 브리튼 설화에서 유래한 아더왕 문학이 일세를 풍미했던 현상이나 그러던 것이 어느 시기에 이르러 쇠퇴 일로를 걷게 되는 현상도, 모두 당시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비취볼 때 비로소 이해된다. 중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중세역사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이처럼 문학작품의 의미지평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참고지식을 얻기 위해서였지만, 어느새 역사 또한 문학 못지 않게 흥미로운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게 됐다. 가령 뒤비의 어떤 저작은 문체나 구성에서 문학작품에 비길 만하고 또 그의 말대로 과거의 역사가 결국은 역사가라는 의식 주체에 의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역사와 문학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묻게도 된다.

중세의 문학이나 역사나 이질적인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언어와 풍습뿐 아니라 세계상 자체가 다른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즐거움도 그렇고, 것처럼 낯선 세계를 여행하면서 때로 너무나 친숙한 인간의 얼굴들을 만나게 되는 반가움도 그렇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문학은 역사가 유보하는 부분, 즉 인간의 내면을 보여준다는 점일 것이다. ❖

대로망을 창출했다. 그런데 이들 서정-서사시들이 음유시인 트루바두르나 민네징거의 작품과 더불어 기사도와 '궁정풍 사랑 amour courtois' 이 꽃핀, 그리고 고딕 성당과 스콜라 철학이 완성된 12세기, 호이징가가 찬탄한 "달리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만큼 창조적이며 조형적인" 12세기에 일제히 선보였음은 실로 놀랍다고 할 것이다. 중세문학의 집대성이라고 할 초서의 《켄터베리 이야기》(1393~1400)는 훨씬 뒤에 나온다.

12세기는 하나님의 서적과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제2의 서적이 출현한 점에서 서적 문화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지닌다. 낡은 파토스의 이야기들, 그 주제는 인간의 육화(肉化)된 삶이었다. 근대소설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웠다고 하지만, "천상에는 신, 지상에는 귀부인"이었던 중세의 이야기는 '영원한' 이상적 여인상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 유럽은 사랑을 발견했다.

이제 서적은 더불어 읽고 듣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벗어나 개인의 텍스트가 됐다. 그리고 독서는 수도원풍의 '속죄의 행위'에서 방편돼 개인적 의미와 기쁨을 획득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권의 서적을 갖게 되고 그림으로써 독서의 열락(悅樂)을 맛보게 된 배경에는 중세의 유럽 전래(12세기)와 목관술의 발명(1390~1400)이 있었다. 양피지본에 비해 종이책은 훨씬 값싸고 또한 부수도 1~2백부 제작됐으며 10인치-7인치 크기의 표준본(?)이 나왔다. 궁정내의 사본실에 이어 대학 주변에도 그리고 차차 상업도시에도 직업적인 사본공방이 생겨났다. 서적문화의 중심이 이제 수도원에서부터 궁정과 대학, 그리고 대도시에 옮겨진 것이다.

《켄터베리 이야기》에 등장하는 옥스포드의 한 신학생은 평생 소원이 20권의 서적을 곁에 두는 것이라고 토론한 바 있거니와 15세기 초 독일의 한 백작부인은 80권의 장서를 자랑했다. 그 대부분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소설의 독어 번역본이었다. 15세기 전반 유럽은

문학적인 유행에 휩쓸리는데 그 독자층은 귀부인과 귀족 가문 출신의 수녀들이었다. 수녀의 방에 이교적 문학서가 슬며시 침입한 것이다. 이제 부인들의 독서 씨름이 생겨나고 베네치아, 뉘른베르크와 더불어 유럽 서적문화의 중심지인 바젤에는 독서방법의 직업적 교사도 생겨났다.

중세 독서법의 기본은 '음독'이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의 회랑(回廊)에서 함창하듯 더불어 소리내어 읽었으며 그들의 학습시간에는 언제나 낭랑한 소리가 메아리쳤다. '읽음'은 바로 '들음'을 의미했다. 4세기의 교회박사요 성인인 안브로시우스가 묵독하는 이상한 독서 광경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서재를 찾았다고 한다. 그런데 독서란 듣는 것 이상으로 '보는' 행위였다.

### 사본문화와 고딕건축의 공유

글을 못읽던 민중의 서적은 대성당이었다고 일컬어져왔다. 스테인드글라스 비롯한 갖가지 도상과 상징적인 조각들로써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읽게 한 대성당. 그것이 어찌 민중만의 교본으로서 끝났을까. 파노프스키는 사본문화와 고딕건축이 공유하고 그것을 굳게 맺어준 '빛'을 강조했다. 삽화 가득 일루미네이션으로 비춘 기호·상징·메타포에 가득찬 사본은 흡사 대성당이다. 사실 사자생들은 그림을 그리듯 글자를 써갔다. 단테는 《신곡》을 쓰면서 그가 자주 찾은 세레당을 상기했다지만 진정한 독서란 문자의 행간에서 이미지를 찾아내고 텍스트를 도상으로 재구성하는, 바퀴 말해 대성당에 들어서는 행위이다.

중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편견에 의해 잘못 그려진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이미 오래다. 중세 르네상스! 그 중세가 몇해 전부터 서적의 모습으로 이땅에도 다가오고 있다. 나의 유럽기행이란 로마네스크-고딕 대성당과 서적, 윌리엄 모리스의 표현을 빌리면 '완벽한 중세의 건축'과 '완벽한 중세의 서적'을 향한 길이다. ❖